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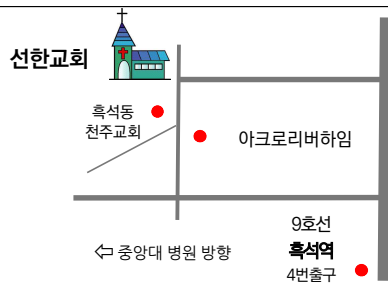
예배 및 모임 시간 안내

주 일 예 배	1부 주일 오전	9:30	부서 예배 및 모임 (주일)			
	2부 주일 오전	11:00				
오 후 예 배	주일 오후	3:30	유 아 부	오전 11:00	남전도회	오후 2:00
	(5째주 셀가족모임)		유 초 등 부	오전 11:00	바 울 회	오후 2:00
중 국 어 예 배	주일 오후	4:00	청 소 년 부	오전 10:00	마리아회	오후 2:00
수 요 예 배	수요일 저녁	7:30	청 년 부	오후 1:00	드보라회	오후 2:00
금 요 기 도 회	금요일 저녁	8:30	영 어 예 배	오후 3:30	에스더회	오후 2:00
새 벽 예 배	월-금요일 새벽	5:30				
	*월삭새벽예배	6:00				
셀 가족 모임	셀별로 정한 시간					

섬기는 분들

사 역 자	담임목사 임 춘 배	국 내 선 교 사	오인숙, 한 배 선, 강 성 규
	교육목사 권 인 혁	해 외 선 교 사	이금춘(김인실), 조나단(강야엘)
	전임전도사 김 진 만	협 력 교 회	기쁨교회 (유성은 목사)
	협력전도사 오 효 남		주의뜰교회 (김대열 목사)
은 퇴 장 로	고 상 돈, 김 대 희		주안예교회 (이정필 목사)
	박 희 태		가슴뛰는교회 (원종선 목사)
장 로	박 영 근 (집사장)	관 리 장 로	손 석 규
	유 신 웅, 조 윤 익	500/50 교회	(1호) 필리핀 Good Church
	조 계 승, 윤 호 중		(2호) 세종 선한교회(신원섭 목사)

선한교회 오시는 방법



버스간선 151, 350, 360, 462,
640, 642, 752(호사정앞 하차)
지선 6411, 5524, 5511, 5517(종점)
광역 9408
마을버스 동작01, 10, 21(중앙대병원)

지하철 9호선 흑석역 4번출구 (도보 5분)
7호선 상도역
*5번 출구 하차 후 마을버시아용(동작 01, 10, 21)

06910 서울 동작구 흑석로13마길 1 (흑석동 173-30)

대표전화 (02) 815-6213 FAX (02) 815-6065 홈페이지 <http://www.sunhan.org>

표 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사 6:8)

Here am I, Send me!

실 천 사 항 기도의 삶 거룩 / 사랑의 삶 선교사의 삶

교회에 대하여 : 같은 마음을 품고 동역하자

삶 의 방 식 개인에 대하여 : 주안에서 항상 기뻐하자

(빌 4:1-7)

성도에 대하여 :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자

문제에 대하여 :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신명기 11:25

기 독 교 선한교회
한국침례회

담임목사 임 춘 배

오 전 예 배	오전 11:00	인도자 : 임춘배 목사
기	원	인도자
찬	양 과 경 배	37장
교	독 문	교독문 15 (시편 27편)
찬	양 과 경 배	413장 (통일찬송가 470장)
대	표 기 도	조계승 장로
말	씀 붕 독	마태복음 5장 3 ~ 4절
설	교	애통하는 자의 복 (임춘배 목사)
환	영 및 광 고	인도자
파	송 의 노 래	그렇게 살아가리
축	도	임춘배 목사

수 요 예 배	오후 7:30	예배장소 : 본 당	인도자 : 임춘배 목사
교회를 섬기는 방법 (롬12:9-13) 임춘배 목사			

교회소식		- 예배 중에는 영상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배 10분 전부터 기도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배 안내	1. 주일예배: 5월 10일부터 교회에서 2부(9시30분/11시)로 나누어 드림 (11시 예배영상 제공) 2. 주중예배: 수요일예배와 금요일기도회는 정상적으로 드림 (영상제공하지 않음) 3. 각종행사: 체육예배를 포함한 각종 모임과 행사는 당분간 갖지 않음	
2. 기타안내	1. 출석체크를 위해 가정별로 영상예배 드리는 인증샷을 담임목사님 개인톡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 부서별, 셀별 기도 제목을 담임목사님 개인톡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3. 당분간 계속해서 헌금은 교회 계좌로 입금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독교한국침례회선한 국민은행 02510104158558	
3. 개인경건훈련 안내	1. 가정예배드리기 2.매일큐티하고 기도하기 3. 성경일독하기 [보충] ※일독 기념품 증정 4. 경건서적읽기 5.부서별 카톡 성경공부 6. 성경암송(20구절): 약1:5 / 요16:24 / 막11:24 시37:4,5 / 고후1:20	
4. 코로나19 기도 제목	1. 코로나 19 종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2. 코로나 19 치료를 위해 종사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3. 코로나 19 확진자들의 완치와 빠른 백신 개발을 위해 기도합니다. 4. 중국을 비롯한 모든 나라에 화개와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도록 기도합니다. 5. 코로나 19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받도록 기도합니다. 6. 코로나 19를 통해 성도들의 신앙이 더욱 성장하도록 기도합니다.	

한주간의 기도제목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감사하기를 공동체가 함께 기쁨으로 예배 드리기를 주신 은혜를 헤아리며 찬양하기를
--------------	---

가정예배

꿈의 옷, 미움의 구덩이

찬송 : ‘주여 지난밤 내 꿈에’ 490장(통 542장)

본문 : 창세기 37장 5~11절

말씀 : 열일곱 살이 된 요셉이 어느 날 꿈을 꿉니다. 형제들이 밭일을 함께하며 곡식 단을 묶는데 요셉의 곡식 단이 일어서자 형들의 곡식 단이 요셉의 곡식 단을 둘러서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이상한 꿈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해와 달과 열한 개의 별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꿈까지 꿉습니다.

꿈 이야기를 전해 들은 형들은 크게 화가 났습니다. “네가 우리의 왕이 돼 우리를 다스리게 된다는 말이나.” 아버지 야곱도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나와 네 어머니와 형들까지 너한테 절하게 된다는 말이나.” 그렇지 않아도 채색옷을 입고 다니는 요셉이 꼴 보기 싫었는데 꿈 이야기로 인해 요셉을 미워하는 형들의 마음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열일곱 살이라면 사회 관계성을 이해하는 일에 있어 어린 나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형들이 자신을 미워하는 줄 알면서도 이런 꿈을 떠벌리고 자랑하는 요셉은 참 눈치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꿈 이야기를 통해 형들이 자신을 다르게 생각하기를, 이전보다 조금 더 잘 대해주기를 기대했던 것일까요. 요셉이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니므로 잘못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분명 지혜로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전해 들은 형들 가운데 어느 사람도 이 꿈을 신적 계시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요셉이 미워서라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새겨둡니다. 야곱 자신도 생각지 못했던 꿈을 통해 계시를 받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두 번이나 반복된 요셉의 꿈이 일상적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살다보면 성격과 성향에 맞지 않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는 일마다 괜히 미워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는 분이라면 저런 사람은 절대로 사용하지 않으실 거라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본 사람이라면 다르게 생각해야 합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면 그 같은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풀지 못하실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 일하고 계시거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게 되면 그 사람을 존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자기 감정과 판단에 따라 서만 사람을 평가합니다. 어찌 보면 인간으로서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참여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유가 될 수도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은혜의 말씀

제목	애통하는 자의 복 (마5:3-4)
서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본론	1. 애통하는 자 (1)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애통하는 자가 됨 (2) 애통은 ‘가장 강한 슬픔’을 의미하며 애통하는 자는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이 없고 ‘없어야 할 것’이 있는 것을 슬퍼하는 자를 말함 (3) 애통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은 ‘위로’ 2. 교훈 (1) 나는 애통하고 있는 자인가? (2) 나는 무엇을 애통하고 있는가? 무엇이 있고 무엇이 없는가? (3) 애통하는 자는 어떤 복이 주어 지는가?
결론	애통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매일 Q.T.		이적과 기사가 아닌 주님 말씀만 따르십시오	날짜 : 5월 4일
찬양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본문	신명기 13:1-11		
	믿음은 선택이며 결단입니다. 그런데 단 한번의 선택과 결단이면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끝없는 선택과 결단의 싸움이 신앙입니다. 선택의 연속이 신앙 여정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은 절제입니다. 선택과 결단의 싸움에서 절제보다 더 강력한 무기는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절제는 절약이 아니라 아예 잘라 버리는 것입니다. 잘라내야 할 것을 잘라내는 것이 신앙입니다. 버릴 것을 주저 없이 버리고 끊을 것을 미련 없이 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유혹의 속삭임이 등장합니다. 이 유혹의 속삭임은 내 자신의 내면에서부터 시작해서 온 동네의 소문으로 인한 유혹의 속삭임으로 확산되고 점층 됩니다. 다시 말해, ‘다른 신들은 어떤 모습이지’하는 호기심의 속삭임에서 시작하여,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이 훨씬 더 복되다’라는 온 동네의 소문의 속삭임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 확장되고 점층 되는 유혹의 속삭임은 모두 동일한 이야기 입니다. 한 마디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겨보자”는 것입니다. 이 유혹의 속삭임에 대한 대처는 유일합니다. 절제입니다(12:32,13:5,10,15). 잘라 버리는 것입니다. 잘라내야 할 것을 잘라내고, 버릴 것을 주저 없이 버리고, 끊을 것을 미련 없이 끊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보다 더 강력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유혹하고 미혹하는 자들을 “돌로 쳐죽이라”(10절), “칼날로 죽이고, 칼날로 진멸하라”(15절). 가정과 공동체에서 신앙의 순수성을 보전하고 유지하는 것은 성도의 책임이자 중대한 과제입니다.		
묵상질문	1. 이적과 기사를 악용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의도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2. 지인이 내게 이단 교리를 전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오늘의 기도			

개인성경공부		경외함을 배우게 하는 십일조
찬양과 기도	나의 생명 드리니 (새 213/통 348)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묵상 나눔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와 삶에 적용한 말씀들을 나누어 보세요.	
이야기 속으로	시각 장애인인 윤인수 목사님은 어린 시절에 중병으로 앓아 누워 있는 어머니를 간병하기 위해 길거리에 나가 신문을 팔고 구두닦이를 했습니다. 친구의 도움을 받긴 했지만 앞을 보지 못하기에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윤인수는 열심히 일해 번 돈을 기뻐하며 가지고 돌아와 어머니 앞에 내놓았습니다. 돈을 받아 든 어머니는 그의 등을 두들겨 주며 “십일조를 먼저 떼자”라고 했습니다. 그는 버럭 화를 냈습니다. “십일조는 무슨 놈의 십일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해 준 게 뭐가 있다가! 내 눈은 멀게 했고 엄마를 병들게 했고 공산당에게 쫓겨 피난민 신세가 되게 했고 재산도 다 빼앗기게 한 그런 하나님한테 무슨 십일조를 내요!”라며 항변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꼭 쥐고 “인수야, 고향 잃어버린 것도 한스럽고 집 잃어버린 것도 원통하고 건강 잃어버린 것도 서러운데 하나님까지 잃고 믿음까지 잃어버리면 뭐가 남겠니”라고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건강하게 살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고, 지금 당장 하나님께 돌아와 다시금 믿음을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합니다. 내 삶에서 감사와 믿음을 잃어버려 회복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말씀 나누기	신명기 14:22~29	
묵상포인트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이 가난한 민족들과 구별되는 표지 중 하나는 십일조입니다. 이스라엘은 토지소산을 비롯한 소득의 십일조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십일조 규례는 그들이 누리는 모든 것의 주인이 본래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을 외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경외에 그치지 않고 이웃 사랑에도 힘써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 즉 가난한 사람과 약자를 위해 사용할 십일조를 따로 모으게 하셨습니다. 사랑에서 비롯된 구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행동으로 기억되며,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근거가 됩니다.	
나에게 주신 메시지		
관찰과 묵상	이스라엘은 매년 토지소산의 십일조를 어디에서 어떻게 드려야 하나요? 이를 통해 이스라엘은 무엇을 배우나요?(22~27절)⌘	
적용하기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내가 인정하고 구별해 드릴 십일조는 무엇인가요? 하나님 경외함을 내 삶에서 어떻게 나타낼 수 있나요?	
함께 기도하기	제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함으로 십일조를 드리게 하소서. 주변의 연약한 사람들을 살아 계신 주님께 하듯 대하고, 그들의 필요를 사랑으로 섬기게 하소서.	
나의 기도문		
기도 (중보기도)		

매일 Q.T.		움켜쥐지 않고 편 손에 하늘의 복이 담깁니다	날짜 : 5월 8일
찬양	찬송가 218장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본문	신명기 15:1-11		
	하나님께서는 안식년에 백성들 서로간의 채무를 면제하라고 명령합니다. 물론 이 채무 면제는 부채의 완전한 탕감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안식년에 해당하는 그 해에 채무를 면제한다는 의미로 보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긍휼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난한 이웃들에게 채무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그 해에는 농사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소득의 중단이라는 측면을 보아도 이 조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매우 바람직한 규제 임이 틀림 없었습니다. 이러한 안식년 채무 면제의 규제는 자칫 채권자들이 손해를 볼지 모른다는 우려로 인해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규제를 지키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복은 개인적인 차원의 복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국가가 타국에 꾸지 아니하고 처리함을 받지 않은 국가적인 복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안식년에 시행해야 할 규제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가난한 자들을 도우라고 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로 대표되는 고아와 과부, 나그네 등은 비단 안식년 뿐만 아니라 어느 때에든지 보호되어야 할 구제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안식년에는 그들이 농사를 짓지 않음으로 인해 더욱 궁핍할 것이기에 그들을 도우라는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이렇게 특히 가난한 자들을 도와야 할 이유는 가난한 자들이 어느 시대에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도 한 여인이 자신에게 향유를 부어 장사를 예비했을 때 말씀하셨듯이(참조, 요12:8), 인간 세상에는 항상 구제를 필요로 하는 자들이 상존하기 마련입니다. 그들에 대한 긍휼 또한 어느 시대의 그리스 도인에게나 요구되는 필수적인 덕목입니다. 만약 그 가난한 자들에게 도움을 베풀지 않을 경우, 그들이 하나님께 호소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형제의 곤란을 간과한 사람에게 찾을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묵상질문	1. 내가 모른체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도와야 할 이웃은 누구인가요?		
오늘의 기도			

매일 Q.T.		공동체의 악을 진멸하는 정직한 순종	날짜 : 5월 5일
찬양	찬송가 322장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본문	신명기 13:12-18		
	한 집단이 일으킨 우상 숭배의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모세는 어떤 잡류가 일어나서 한 성읍의 거민을 미혹케 하였을 경우에 그 성읍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가르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실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 확인한 후에, 성읍 거민들 전체라도 반드시 처단하여 악을 제거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얼마나 싫어하시는가를 단적으로 보여 주시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한 성읍의 거민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의 우상 숭배를 결코 용납할 추 없으신 것입니다. 또한 우상 숭배를 막는 것은 여호와께 정직히 행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거짓 선지자들이나 가족들, 그리고 한 집단의 우상 숭배를 처단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악에서 돌이키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정직히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이스라엘의 열조에게 명하신 대로 수효를 번성케 하시고 축복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자고 유혹하는 자들이 있으면 누구든지 반드시 처단해서 이스라엘에 잠입한 악을 제거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오늘날 사단의 문화 가운데서 영적인 전투를 수행해야만 하는 우리 성도들 역시 반드시 유념해야 할 권고입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침입해 오는 사단의 영향력을 말씀의 검으로 무장하여서 반드시 척결해야 할 것입니다.		
묵상질문	1. 한 성읍 전체가 다른 신을 따를 때 그 성읍은 어떤 심판을 받게 되나요? 2. 이스라엘은 '진멸할 물건'을 어떻게 처리해야 했나요? 오늘 하나님이 금하신 일에 정직하게 순종한다면 후일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오늘의 기도			

매일 Q.T.		거룩한 백성의 구별된 삶	날짜 : 5월 6일
찬양	찬송가 420장 너 성결기 위해		
본문	신명기 14:1-21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와 성민이라고 말씀 하십니다. 그럼으로 그들은 가나안의 이방적 관습을 따르지 않아야 했습니다. 당시 가나안에서는 죽은 자를 위한 자해 행위의 규례가 있었습니다. 모세는 장례식 때 고행을 통해 죽은 자를 좋은 곳에 보낸다는 이교적 풍습에 동요하 지 말 것을 이스라엘에게 지시합니다. 아울러 히브리인들은 관습상 머리털을 밀지 않았으나 가나안인들은 머리를 삭도로 민 머리 형태를 그들의 신을 섬 기기 위한 고유의 머리 형태로 가지고 있었던 듯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가나 안의 규례를 따르지 말 것을 권면 합니다. 이어서 모세는 다시금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지 못할 음식에 관한 규례를 상세히 설명합니다. 이러한 음식 규례는 단순히 위생적인 측면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죄로부터 구별되는 정결의 법을 가르치기 위한 하나님 자 신의 기준으로 설정된 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음식 규례를 통해서 이스 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배워야 할 것은 단순히 그것을 지킴으로써 얻는 기쁨 뿐 아니라 하나님에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정결의 요구를 만족시킨다는 점이었습니다. 음식 규례와 아울러, 비록 먹도록 규정되었더라도 스스로 죽은 동물들의 고기 는 먹지 말아야 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짐승을 잡을 때에는 그 피를 제거 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졌으나 자연사하게 되는 경우 그런 조치가 불가능하였 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지된 것입니다. 이 것은 생명을 귀하게 여기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염소 새 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삶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삶는 행위는 생명의 존엄성을 경멸하는 행위로 간주된 것입니다. 가나안 종족 들은 그러한 행위를 행했는데, 이는 주술적인 목적이나 별미를 만들 목적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바로 그러한 일을 금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종족들과 구별되어야 한다고 권면했습니다.		
묵상질문	1. 나의 일상생활에서 구별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점인가요?		
오늘의 기도			

매일 Q.T.		경외함을 배우고 사랑을 나누는 십일조	날짜 : 5월 7일
찬양	찬송가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본문	신명기 14:22-29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마다 토지 소산의 십일조를 드려야 했습니다. 또한 곡 식과 포도주와 기쁨의 십일조를 드려야 했는데, 이 세 가지는 이스라엘의 농 업 소득 전체를 의미하였습니다.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소득 전 부에서 십일조를 떼어 하나님께 드려야만 했습니다. 이 십일조의 규례는 이미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전리품의 십분 일을 드린 때부터 그 기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규례를 행함에 있어서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는 십일조가 사용되는 가장 첫번째 사용처는 바로 이스 라엘 의 지파들 중 기업을 없는 지파인 레위 지파의 생활비로 충당되었습니 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인들에게 십일조를 바쳤으며 레위인은 다시 십일조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거제로 드렸는데, 그것은 제사장들의 몫이 되었 던 것입니다(참조, 민18:26-29) 십일조의 또 다른 용도는 바로 가난한 자들인 고아와 과부, 그리고 객들의 처우 개선에 있었습니다. 십일조는 이렇게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십일조를 적절하게 배분하여 교회 내와 교회 밖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구별된 삶을 살아야만 했는데, 그 이유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특별 히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 역시 이러한 이스라엘의 정체성 을 공유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 애써 야 할 것입니다.		
묵상질문	1. 십일조 생활을 통해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2. 가난한 이들을 돕는 작은 섬김을 어떻게 생활화할 수 있을까요?		
오늘의 기도			

금주의 성경암송구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5)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 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24)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마가복음 11:24)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시편 37:4-5)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고린도후서 1:20)